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자치분권 필요”

자치분권위원회 ‘대국민 인식조사’

59.8%, 중앙에 집중 지방분권 미진 54.3%, 지방재정 확대 경제 활성화 65.9% “지방자치 활동 참여 의향”

‘주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 6개월이 넘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을 통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 4월,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분권 대국민 인식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2.8%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 86.7%가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현재의 자치분권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 59.8%가 ‘중앙에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응답, 지방 분권이 아직도 미진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를 반영하듯,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6.7%로 조사돼 ‘지금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 (43.4%)보다 높았다. 특히, 지방 분권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지방재정 확대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점에 대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3%가 동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 활동 참여자의 3분의 2 이상 (66.9%)은 본인의 참여 활동이 지방자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국민 3명 중 2명 (65.9%)은 향후 지방자치 활동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 활동 분야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의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주민투표(29.7%)가 가장 많았고 ▲주민발의(23.4%) ▲주민자치회(10.5%) ▲주민참여예산제(6.9%) 등이 뒤를 이었다. 자치분권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로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등이 꼽혔다.

지난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9%가 알고 있었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4%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치분권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분야로 ‘대중교

통, 상수도,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높은 점수(7점 만점에 4.79점)를 받았다. 이어 지역사 회 전반(4.71점)·지역경제 발전(4.70) 지방행정의 민주화 또는 지방행정의 민주적 변화(4.63)·주민의 지방정치 참여와 자긍심 제고와 보건·복지 향상(4.59) 여가활동 향상(4.36)순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입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결정 전문 인력 도입으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주민주권 강화로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참여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앙-지방 및 지방정부 간 협력이 강화된 것도 지방 자치법 개정의 성과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우 시·군·구 및 시·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의 지방 이양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정한 자치 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민자녀 지역 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공동기획:자치분권위원회

폴란드, 한국과 ‘K-2전차·K-9자주포·FA-50 경공격기’ 도입 계약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도입 계약을 추진한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장관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이란 무기 도입 계약 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폴란드 국방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다.

웹사이트 공지문에 따르면 폴란드는 1단계로 K2 전차 180대를 도입하고, 2단계로 800대 이상을 현지화한 모델 K2PL로 확보한다. 2단계는 현지 생산이라고 설명했다.

FA-50는 내년 중반까지 12대를 포함해 총 48대를 인도받는 일정이라고 공개했다. K-9 자주포는 1단계로 48문을 수입할 예정이며, 이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내에 인도된다.

이어 2024년에는 600대 넘는 K-9의 공급이 시작되는데, 2026년부터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폴란드 현지 생산을 추진한다. 추가 물량은 현지 생산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 등 한국 정부와 생산 업체는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예상 수출 규모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날 폴란드 정부의 발표로 계약 추진 방향이 확인됐다.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과 무기 계약은 최근 몇 년 새 폴란드 국방 도입 가운데 중요성과 규모가 매우 큰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계약의 특징은 ‘신속한 인도’와 ‘대규모 기술 이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 무기 도입으로 폴란드의 역지력과 국방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방산업계가 참여해 폴란드 내에서 생산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등 당첨금 1조3천억원...美 복권 열풍

3억250만분의 1의 확률...29번 연속 당첨자 없어 상금 누적

미국의 ‘메가 밀리언’ 복권 1등 당첨금이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로 치솟으면서 복권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6개 숫자를 맞춰야 하는 1등 당첨금은 미국 복권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이다. 1등 당첨 확률은 3억 250만분의 1이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번 추첨하는 이 복권 당첨금이 이만큼 불어난 것은 4월 15일 이후 29번 연속 당첨자가 없어 상금이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날 추첨에서도 1등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10억달러는 30년에 걸쳐 받는 경우이며 일시불로 받으면 6억250만달러(약 7900억원)다.

당첨액이 크게 늘면서 복권 판매액도 19일 1억 1600만달러(약 1500억원)에서 22일 1억7210만 달러(약 2260억원)로 증가했다. 이날 예상 판매액은 2억6210만달러(약 3400억원)다.

직원들에게 복권을 나눠주는 회사도 생겼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체인 ‘레이징 케인스’ 창업자인 토드 그레이브스는 미국 35개 주의 체인점에서 일하는 직원 총 5만 명에게 복권을 나눠주기 위해 25일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를 들여 5만장을 구매했다. 복권 가격은 한 장에 2달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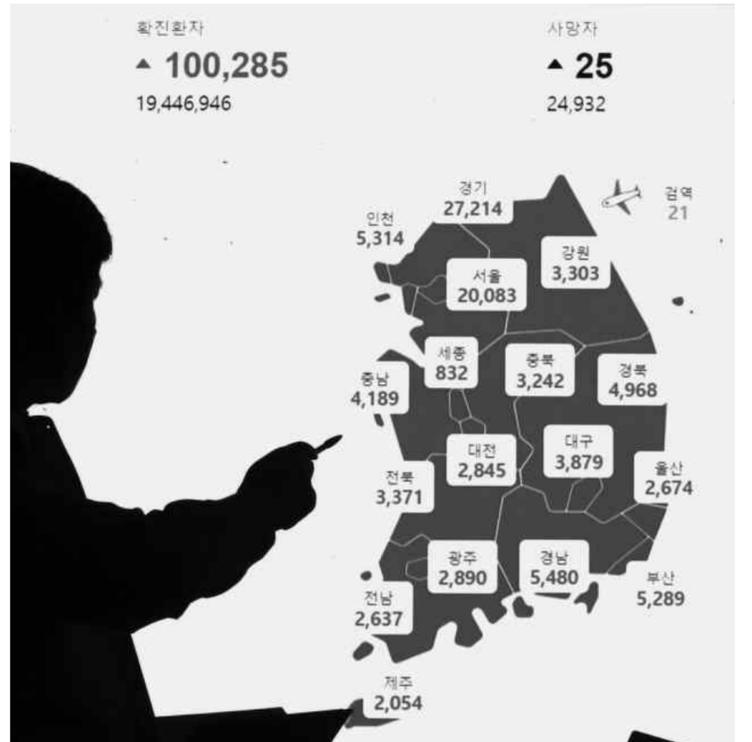
AJ 쿠마란 레이징 케인스 최고경영자(CEO)는 CNN 인터뷰에서 “주요소나 식품 등 어딜 가나

다들 복권 생각뿐”이라며 “사는 게 팍팍한 요즘 직원들에게 소소한 재미와 함께 어쩌면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직원 중 누가 당첨되면 당첨금은 모든 직원이 나눠 가질 것이라며 “우승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직원들에게 복권을 나눠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분, 땅 삽·니·다

맹지는 안삽니다.
문의. 010-3605-500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99일만에 10만명을 넘던 27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지역별 확진자 숫자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방역’ 어디가고 ‘자율방역’만

정부, 코로나19 재유행에도 의무없이 ‘권고·자제·요청’ 지원금 등 방역 참여 유인책 줄고 기존 대응방안 되풀이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활성화, 유증상자 휴가, 학원 원격교습 전환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일상 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을 내놨다.

사적 모임의 시간·인원까지 제한했던 문재인 정부의 규제중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대신, 과학적 근거와 국민의 자율성에 근거한 방역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대로 이번 방안은 의무사항 없이 ‘권고, 자제, 요청’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재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방역은 어디 가고, 자율 방역만 강조하냐”는 불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고, 중단 없는 일상회복 속 방역기조를 이어 가고자 한다”며 “재유행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반의 일상방역의 생활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진방안에는 공직자가 휴가에서 복귀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휴가를 적극 실시하며 회의·행사 비대면 개최, 행사·모임·회식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역을 맞은 학생들이 밀집되는 학원에

는 원격교습 전환과 각종 체험·놀이·현장학습 등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의심증상시 유급휴가 및 병가, 가족돌봄휴가 사용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 다중이용시설과 대형유통시설 등의 방역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 다방면에서의 방역 관리 대책이 담겼다.

그러나 유급휴가비·생활지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등 방역 참여에 따른 유인책은 오히려 줄어들고, 기존 대응방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권고안’이 제대로 수용될 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방역정책의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 등이 빈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자율방역을 강조하는 사이 광주·전남에선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광주 2890명, 전남 2637명 등 552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지난 4월 20일 이후 98일 만에 다시 10만명대(10만2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수요일 기준으로도 14주 만에 최다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목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목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목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목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